

하나금융,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100억 매입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임직원 급여 일부 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

하나금융그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총 100억원을 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 구입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그룹 내 임직원들은 6개월에 걸쳐 본인들의 급여 등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받기로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다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구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각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사용을 유도해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하나금융그룹

/연합뉴스

국의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천안함 10주기

주인공들에 실질적 예우 절실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해 표면적으로는 천안함의 숭고한 위국헌신을 기리지만, 정작 유족들과 생존전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은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오후2시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제10주기 천안함 추모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함 함명을 신형 호위함에 이름 붙이는 방안이 군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축소된 추모식

이날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주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50여 명의 인원만 참석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천안함 10주기를 맞아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을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약 ‘천안함’ 명칭이 신형 호위함에 명명된다면 광역도시급

명칭을 붙이는 현행 관례와는 다른 예의 사례가 되는데 정 장관이 천안함 유족 및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천안함 함명 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수호 98명 국가유공자 돼야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10주기는 규모는 줄었어도 융숭해 보이는 구색은 갖추 셈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주인공들이 빠진 보여주기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공훈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다. 본지가 지난8일 천안함 전사자와 한주호 준위의 공훈내용이 잘 못 오기된 것이 계기다. 2차연평해전의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계급부터 천안함 임재엽 상사와 김종현 상사의 이름과 계급 등이 잘 못 기록돼 있었다. 총무공공훈장을 받은 한주호 준위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언론과 유족이 지적할 때까지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과연 천안함 함명 부여 등 표면적인 위로가 진정으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문형철 기자 captinn@

두산연강재단, 대구·경북 학생에 특별장학금 3억 지원

중·고교 학생 300명에 전달

두산연강재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중·고교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3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학금은 대구시·경상북도 교육청을 통



해 30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을 입은 지

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50명의 학생들에게 총 8억5000만원의 특별재해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용현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3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으라 했다. **48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60년생** 부모님 생신날 효를 행하자. **72년생** 골치 아픈 일은 조언을 구하여 처리. **84년생**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 37년생** 친구가 지적해주는 말을 경청해야. **49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속을 따르는 것도 지혜. **61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73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 초전. **85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 3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50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흥한다. **62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 난다. **74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86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 39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닦자. **51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63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 의식이 일어난다. **75년생**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8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 40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뉘 수 없이 친한 친구가 감사. **52년생** 백(倻)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64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76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88년생** 흰색이 행운을.
- 41년생** 처남으로 인해 손재수. **53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65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77년생**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조금씩. **89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될 것.
- 42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54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66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78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90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 43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 **55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니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67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79년생** 약속이 겹치지 않도록 메모하라. **91년생**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는다.
- 44년생** 콩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지 말자. **56년생** 잡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68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어야. **80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92년생** 뒷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 45년생** 조성을 숭배하고 문중을 돌보자. **57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으로 밀고 나가자. **69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81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93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 46년생** 위태롭고 험난함을 무릅쓰고 오늘에 이르렀다. **58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70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82년생** 성격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94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 47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의 영역에서 시작. **59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남편이 기가 막혀서 우울. **71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83년생**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95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김상희의四季

부모 노릇

경자생의 영특함과 더불어 감성지수가 남다른 바 있었다. 총명함과 더불어 예능이나 문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많은 것이다. 아이들의 자질을 미리 알아보려는 부모라면, 특히 경자년에 아기를 낳게 되는 예비 부모들이라면 귀담아 새겨보면 좋을 것이다.

만약 재능이 예체능에 특화되어 남다른 바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선택권을 주게 되면 재능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스스로 영민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더욱 애정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음감이 뛰어난 듯하다 해서 무조건 피아노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를 택하게 해보라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부모 자신에게 익숙한 악기를 배우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 해서 무조건 의대나 법대에 보내려 드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계속해서 부모의 고집대로 하려 한다면 아이의 자아가 사라진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없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의외로 많은 부모가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열성들이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을 막고 자녀들의 자율 의지를 꺾는 큰 요인인 것을 간과한다.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알기도 힘들겠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듯이 말이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자아를 키워나가도록 격려해주어야 하니 제대로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유도 함께 준다. 헬리콥터 부모들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문제풀이:
3X3 �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도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4	
1				3	
5	3		6	2	
	6	2		1	4
	1				3
5		1			

	6	5				2		9	
		1				7	6	4	5
9		2	6	3			8		1
			1		9	4			
	1	6	5		3	9	2		
		7	8		2				
5		9		2	6	1		4	
6	3	8	9			7			
1		4				3	9		

정답

2	9	1	8	9	7
8	9	7	9	1	2
7	1	9	2	9	8
1	2	9	7	8	9
9	8	2	9	7	1
9	7	8	1	2	9

9	6	8	8	9	7	7	1
2	9	7	1	6	8	8	9
7	8	1	9	2	8	6	7
8	1	9	2	9	8	7	6
7	2	6	8	9	9	1	8
8	9	7	6	7	1	8	9
1	7	8	9	8	9	2	7
9	7	9	7	6	2	1	8
6	8	2	1	8	7	9	7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방탄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18호